

<http://doi.org/10.5253/kpac.2026.57.5>

## 石北 申光洙의 傳에 나타난 ‘奇異’와 ‘復讐’

김정녀\*

### 차례

1. 신광수의 시선을 사로잡은 사람들
2. ‘奇異’한 인물을 통해 본 ‘不遇於時’의 문제
3. ‘復讐’를 행한 인물을 통해 본 ‘不信不義’의 문제
4. 맺음말

### | 국문초록 |

본고는 <서마기사사>(書馬騎士事), <호승전>(虎僧傳), <검승전>(劍僧傳)에 나타난 ‘기이’와 ‘복수’에 대한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의 관심을 통해 작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석북은 <서마기사사>의 마기사(馬騎士), 초서객(草書客), 동생(董生), <검승전>의 검승(劍僧), 검승의 스승[劍師], <호승전>의 호승(虎僧) 등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 비범한 이들의 재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간취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소멸되고 마는 것은 결국 이 사회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북은 호승이나 검승과 같이 신의를 지켜 복수를 행하는 이들을 통해 불신, 불의로 가득한 당시 세태를 비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석북 자신이 뛰어난 재주를 품고서도 오랜 세월 소외되었던 것처럼 세상에는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한 걸출한 사람들이 있으니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생각, 불신과 불의로 가득한 세태에도 의리를 지켜 복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이 석북의 눈길을 ‘기이’하고 ‘복수’하는 사람들에게로 이끈 것이 아닐까 한다. 이는 비단 석북 개인의 삶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당대가 재능이 억압된 사회, 신의가 붕괴된 시대라는 인식에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강의전담조교수

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어** : 신광수(申光洙), 서마기사사(書馬騎士事), 호승전(虎僧傳), 검승전(劍僧傳), 기이, 복수

## 1. 신광수의 시선을 사로잡은 사람들

石北 신광수(申光洙, 1712~1775)의 시선을 사로잡은 기이한 사람들이 있다. 한 명은 호탕하고 세상에 얽매이지 않은 기질을 지닌 무사로 詩에 대한 감식안이 높을 뿐만 아니라 기이한 인사들과 산수를 유람하며 수많은 시를唱和하였다는 ‘마기사(馬騎士)’이고, 또 한 명은 지극정성으로 스승을 모시다가 虎患을 당한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범과 싸우다 죽었다는 묘향산 ‘호승(虎僧)’이다. 나머지 한 명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 들어온 왜군 특수부대 출신으로, 3천 명의 왜인 부대를 몰살한 무명 검객의 제자가 되어 십여년을 지내다가 함께 스승을 섬기던 동료가 스승을 살해하자 동료를 죽여 스승의 원수를 갚고 평생 몸을 감추고 살았다는 오대산 ‘검승(劍僧)’이다. 석북은 마기사에 대해 ‘세상의 奇男子로 騎士의 자리에 자신을 감춘 자’라며 그를 한번 만나보기를 간절히 바랐으며, 호승에 대해서는 ‘夷狄의 가르침을 배운 자’중에 의리를 아는 드문 자라며 ‘절의가 우뚝하여 사람의 이목을 환히 비추고 있는 자들’에 견준다. 또 검승에 대해서도 ‘夷狄이지만 奇男子’라 칭송하며 傳을 남긴다.

석북은 <書馬騎士事>(일명 <馬生傳>)<sup>1)</sup>, <虎僧傳>, <劍僧傳> 외에도 훈

1) 석북이 친우 유직(孺直)과 작별하며 쓴 시 <別孺直盡室歸坡山> 其三에 “君讀馬生傳, 文章歎我奇. 敢爲千古意, 猶有一人知.”(『石北先生文集』 卷之一)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 ‘馬生傳’은 곧 <書馬騎士事>를 가리킨다. 이는 이가원, 『石北文學研究』(『동방학지』 4, 연세대학교학연구원, 1959, 191쪽)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 <書馬騎士事>는 제목으로 보아 ‘傳’이 아닌 ‘記事’로 분류해야 하지만 조선 후기 記事와 傳의 구분이 모호한 작품이 다수 존재하고 석북 또한 ‘마생전’으로 일컫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書馬騎士事>를 석북의 傳과 함께 다루고자 한다.

인한 지 6개월 만에 남편이 병들어 죽자 남편의 장례와 제사를 모두 마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열부 정씨(鄭氏)의 정렬을 칭송하는 <鄭烈婦傳>과 단종 때 나라를 위해 순절한 정분(鄭芬)의 후손을 하늘이 찾아준 이야기를 기록한 <書狂奴子墓誌事> 등을 남겼다. 사대부의 입전 대상자 중 충효열을 행한 이들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열부 정씨와 정분의 후손 광노자(狂奴子)가 그들에 해당할 것이다. 그런데 석복은 특별히 마기사, 호승, 검승과 같은 기이한 인물들에 주목하고 이들에 관한 일을 기록하였다. 또한 마기사를 제외한 검승과 호승의 경우는 공히 스승을 위해 ‘복수’를 행한 인물들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여 입전하였다.

그간 석복의 傳과 記事에 주목한 연구들은 적지 않다. 석복의 생애와 문학의 전반적 특징을 다룬 이가원과 이기현의 논의 이후 박우훈은 석복 산문에 나타난 처신과 마음가짐, 修辭를 집중 고찰한 바 있다.<sup>2)</sup> 개별 작품으로는 박희병이 조선후기 傳의 소설적 경사의 사례로 <검승전>을,<sup>3)</sup> 정환국과 정난영이 조선후기 인물기사의 성격을 논의하면서 <서마기사사>를 고찰하였고,<sup>4)</sup> 김승호는 <호승전>과 <검승전>을 통해 僧傳의 변이 양상을,<sup>5)</sup> 이은주는 18세기 화제가 되었던 ‘광노자’ 사건의 전말을 살피면서 <서광노자묘지사>를 언급한 바 있다.<sup>6)</sup> 이 중에서도 <검승전>은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되며 의미 있는 성과가 축적되어 있다.<sup>7)</sup> 선행 연구들은 석복의 작품에 나타난 특징과 의미를 설명하

2) 이가원, 위의 논문; 이기현, 『石北 申光洙 文學 研究』, 보고사, 1996; 박우훈, 「石北 申光洙의 散文世界」, 『인문학연구』 33-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47~70쪽.

3)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156~157쪽.

4) 정환국, 「조선후기 人物記事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한문학회』 29, 한국한문학회, 2002, 291~320쪽. 정난영, 「조선후기 人物記事의 서사화 양상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85, 한민족문화학회, 2024, 187~220쪽.

5) 김승호, 「朝鮮 後期 僧傳의 變異양상-18세기 儒者의 작품을 중심으로」, 『불교학연구』 22, 불교학연구회, 2009, 261~296쪽.

6) 이은주, 「진짜인가, 진짜로 만든 것인가-18세기 ‘광노자(狂奴子)’ 사건의 이해」, 『이화어문논집』 49, 이화어문학회, 2019, 30~53쪽.

7) 정하영, 「〈劍僧傳〉의 人物型과 갈등 양상」,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93~123쪽; 정인혁, 「〈劍僧傳〉 서술자의 정체성 연구」, 『한국고전연구』 1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197~225쪽; 서신혜, 「고전서사 속 降倭의 형상화 양상에 대한 연구」, 『동양고전

는 데 기여한 바 크다. 본고에서는 기왕의 연구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서마기사사>, <호승전>, <검승전>에 보이는 ‘奇異’와 ‘復讐’에 대한 석복의 관심을 통해 작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奇異’한 인물을 통해 본 ‘不遇於時’의 문제

<書馬騎士事>의 주인공 馬騎士는 ‘不知何許人’이다. 그는 석복의 아우 광하(光河)가 벽제역에서 쉬던 중 만난 무사로, 서울에서 숙위(宿衛)를 마치고 돌아와서 광하와 이야기를 나누고 시를唱和하기까지 하였으나 끝내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광하는 마기사를 처음 마주했을 때 그의 외양과 행동을 보고는 기이한 사람임을 알아챈다.

그때 서울 길에서 오는 나그네가 있었으니, 준마(駿馬) 두 마리를 모는데 종도 거느리지 않고 능히 직접 몰아 문으로 들어왔다. 그 사람을 보니, 키가 8척 남짓에 이마가 넓고 입이 크며 눈썹은 길어 살짝 가에까지 닿았으며, 아름다운 수염 수백 가닥이 말할 때마다 흔들거렸다. 또한 눈에 광채가 있었으며 작은 종림(鑿笠)을 쓰고 소매가 좁은 김정색 옷을 입었다. 또 포도 문양의 가죽신을 신고 비단 띠를 허리에 둘렀으며, 은색 손잡이의 옷칠한 채찍을 손에 쥐고 있었다. 예(禮)를 행하지 않고 그 곁에 앉아 있었는데, 잠시 후 그가 주머니 속에서 100전(錢)을 꺼내 가게 주인을 불러 술과 돼지머리 하나를 주문했다. 연거푸 몇 사발을 다 마신 뒤

연구』 37, 동양고전학회, 2009, 161~188쪽; 정하영, 「전쟁 포로의 소설적 형상화-〈劍僧傳〉», 『탈경계 인문학』 4-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1, 5~33쪽; 김경희, 「『검승전(劍僧傳)』에 나타난 인물 관계의 다문화적 고찰», 『다문화와 평화』 8-3, 성결대 다문화평화연구소, 2014, 21~43쪽; 정인혁,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의 극복과 ‘교양’의 의미-석복 신광수의 〈劍僧傳〉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3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26~60쪽; 조현우, 「조선 후기 소설의 항왜(降倭) 형상과 ‘민족’의 구성-〈검승전(劍僧傳)〉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7, 한국고소설학회, 2024, 5~38쪽.

패도(佩刀)를 꺼내니, 그 빛이 사람을 비추었다. 한 자쯤 되었는데 그 표면에 ‘추리(秋鯉)’라고 새겨져 있었다. 돼지고기를 썰어 전부 먹는데 의기(意氣)가 대단하여 옆에 아무도 없는 듯 거리낌이 없는지라, 광하가 놀라워하며 기이한 사람임을 알았다.<sup>8)</sup>

마기사의 8척 남짓 되는 키, 넓은 이마, 큰 입, 긴 눈썹과 아름다운 수염, 광채 어린 눈은 좌우를 압도할 만한 외양이라 할 만하다. 게다가 마기사는 술 몇 사발을 연거푸 들이키고는 한 자쯤 되는 佩刀를 꺼내 직접 돼지고기를 썰어 먹는 등 대단한 意氣를 보여 주위를 놀라게 한다. 예사롭지 않은 모습과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마기사를 광하는 ‘기이한 재주를 지닌 사람[奇士]’이라 짐작한다. 이에 호감을 느낀 광하는 마기사에게 이야기를 건네는데, 한참 이야기를 나눈 뒤 그가 시에 능하며 시를 보는 안목도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서 시에 능한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광하의 질문에 마기사는 석복이 지은 시를 읊으며, ‘필시 시에 능한 사람이 지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sup>9)</sup>은 짐짓 의도된 것처럼 보이긴 하나 당시 석복의 명성을 고려하면 과장이 아닐 수도 있다.<sup>10)</sup>

8) <書馬騎士事> “有客從京師路，馳兩駿馬，不帶奴，能自馭入門。見其人，長可八尺餘，廣頰大口，眉長入鬢際，美鬚髯數百莖，語輒搖動，目有光。小駮笠，衣皂夾袖，葡萄紋鞵袴，腰錦帶，手銀頭漆鞭，不施禮，坐其側，已而，囊中出百錢，呼店主人，換酒一甕頭，連倒數碗訖，拔佩刀，光照人，一尺，刻其面曰秋鯉者，切屍肉啗盡，意氣偉然，旁若無人。光河駭然，知其爲奇士。”(『石北先生文集』卷之十六，雜著)

번역은 조선대학교 고전번역연구소에서 제공해준 번역본을 활용하였으며 일부는 수정함.

9) <書馬騎士事> “遂移席相近曰，吾將以好詩，爲子相聞，以子所聞知，今世孰爲能詩者。曰，世未嘗無其人，而吾未盡聞知也。嘗記一句曰，‘臨行數盃酒，不敢恨明時，此不知爲何人作，而亦不聞全篇也，必能誦詩者爾。’此光洙往年送蔡伯規赴嶺外詩也。光河益大驚，子何從聞此詩，乃吾兄作也。騎士曰，有人傳書生作爾，果然，亦不問所謂其兄姓名。”

10) 신광하(申光河, 1729~1796)가 지은 석복의 行狀에 따르면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떨어졌으나 명성은 더욱 성대해져 석복의 시와 부(賦)를 애송하는 문사들이 많았다고 한다. “游庠序間，有司輒屈之，而名益盛，竟大鳴一時，公車家體裁，一變陳陋習。於是名動一國，極南北荒野海島小民，有能誦詩書學文詞者，率著公詩賦累十編日誦，舉其名，願一見其面。四方游學之徒，跋涉千里，請益於門下者甚衆，承一言指授，畧悟解，大抵所爲法度，多異衆。”(『石北先生文集』卷之十六，行狀)

그런데 무인이면서 시에 능하다는 것만으로 그를 ‘기인’이라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취흥이 무르익어 마기사가 직접 들려준 그의 내력에서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숨어 사는’ 기인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다음은 마기사가 자신의 평생을 대략 말한 것이다.

“집안은 본래 해서(海西) 사람이고 성은 마씨(馬氏)인데, 군적(軍籍)에 들어가 있고 임협(任俠)을 좋아하였으며, 술을 즐기고 시를 읊느라 집안사람의 생업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시다. 젊었을 때에 동선령(洞仙嶺)을 지나가다 강도(強盜) 몇 명을 만나 추리검(秋鯉劍)을 휘둘러 모조리 죽였습시다. 평양(平壤)에 아끼는 기생이 있었는데 심사(心事)를 어기는 일이 있기에 또 죽이고서는, 하룻밤에 이 백리를 달아나 강호의 사이에 몸을 숨겼습시다. 몇 년 뒤에야 비로소 나와 산수를 유람하였는데, 세 차례 풍악산(楓嶽山)에 들어갔고 구군(九郡)의 설악산(雪岳山), 오대산(五臺山), 청평산(淸平山)을 아울러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국도(國島)로부터 육진(六鎭)이 끝나는 곳까지 가서 야인(野人)의 땅을 바라보았고, 남쪽으로는 지리산(智異山)을 구경하고 동래(東萊)의 바닷가까지 이르렀습시다. 양서(兩西)로 말하자면 저의 고향과 이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거의 일주(一周)한 것이고 중국만 구경하면 천하를 다 구경하게 되는 셈입니다.”<sup>11)</sup>

위 인용문에 따르면 마기사는 무예에 능하고, 약자를 돕고 강자를 물리치는 것을 좋아하며, 시와 술을 즐기느라 생업을 돌보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러던 그가 몸을 숨겨야 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젊었을 때 황해도 동선령에서 강도를 만나 그들을 모조리 죽인 일과 평양에서 자신의 심사를 어긴 기생을 죽인 일이다. 그의 살인 행위는 범질서를 어긴 것이지만 사람의 생명과 재물을 빼앗는 도적을 죽인 것도, 자신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 기생을 죽인 일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보면 마기사는 자신의 행위를 정의와 신의를 지키기 위한 俠行

11) <書馬騎士事> “家本海西人，馬其姓。隸軍籍，喜任俠，嗜酒吟詩，不事家人產業。少嘗過洞仙嶺，遇劫盜數人，揮秋鯉劍盡。平壤有愛妓，作負心事，又殺之，一夜走二百里，匿命江湖間。後數年，始出游山水，三入楓岳，并九郡雪岳五臺淸平，北自國島，窮六鎭，望野人地，南見智異山，至東萊海上，若兩西則吾鄉鄰耳。東國殆一周已，觀中州，則盡天下矣。”

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석북 역시 그를 ‘검객’으로 추정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마기사는 游俠<sup>12)</sup>의 부류로 짐작된다. 그렇게 강호에 숨어 살던 마기사는 몇 년 후 세상으로 나와 산수를 유람하는데 풍악산뿐만 아니라 설악산, 오대산 등 강원도 일대의 명산은 물론 북으로 六鎭, 남으로 지리산, 東萊까지 우리나라는 거의 일주하였다고 말한다.

그런데 다음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산수 유람에 나선 마기사에게서 이제 유희가 아닌 이인(異人)의 풍모가 물씬 느껴진다. 산수를 유람할 때면 항상 함께했다는 ‘草書를 잘 쓰는 객’도 마찬가지다.

“산수(山水)가 진실로 기이하다지만 유람하면서 바다를 구경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유람을 한 게 아닙니다. 또 유람은 기이한 인사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제게는 초서(草書)를 잘 쓰는 객이 있었습니다. 제가 산수 간을 노닐 때에는 늘 그와 함께하였습니다. 내가 좋은 경치를 만나 시를 얻으면 반드시 객으로 하여금 먹을 흥건하게 갈아서 암벽 사이에 한 번 휘갈겨 쓰게 하고는 버리고 떠나 다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1500전을 주고 배를 사서 나루에 나아가, 하루 밤낮 동안 순풍(順風)을 타고 제주(濟州)로 들어갔는데, 바다에서 황룡(黃龍)이 물 위에 몸을 세우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고, 고래와 신기루는 기괴하고 놀라웠습니다. 백록담(白鹿潭)에 올랐는데, 이곳은 한라산(漢拿山)의 꼭대기로 독룡(毒龍)이 사는 곳이었고, 그 서쪽은 중국의 소송(蘇淞)과 복건(福建) 지역이었으며, 맑은 날에는 남쪽으로 유구(琉球)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추분(秋分)이라 노인성(老人星)이 정의현(旌義縣) 앞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크기가 술잔만 한 것이 사라지니, 천하의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내가 그 위에서 고참치면서 미친 듯이 날뛰다가 이윽고 시를 완성했는데, 초서객(草書客)이 어지러이 붓을 휘둘러 혹은 못 가운데 던지고 혹은 어지러운 바위틈에 버렸습니다. 이렇게 사흘간을 먹지도 않고 지내다가 흥이 다하여 배를 끌고 서둘러 돌아왔으니, 이때의 즐거움이 가

12) “儒자는 文으로써 법을 어지럽게 하고, 遊俠는 武로써 禁습을 범한다. -(중략)- 지금의 유희는 그 행위가 비록 正義에서 規도가 벗어나긴 했으나 그들의 말에는 반드시 신의가 있고 그들의 행동에는 반드시 過단성이 있어서, 이미 승낙하면 반드시 정성을 다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는다(儒以文亂法, 而俠以武犯禁. …(중략)… 今游俠, 其行雖不軌於正義, 然其言必信, 其行必果, 已諾必誠, 不愛其軀).”(사마천, 『사기』, 『游俠列傳』)

장 통쾌해서 잇을 수가 없습니다.”<sup>13)</sup>

마기사와 초서객이 산수를 유람하며 노니는 장면은 여느 사대부와는 다르다. 좋은 경치를 만나 시를 읊는 풍경이야 예사로 볼 수 있겠으나 이들은 마치 오늘날 살고 내일은 없는 듯, 시를 지으면 암벽 사이에 한 번 휘갈겨 쓰고는 버리고 떠나 다시 기록하지 않았다. 어디 하나 얽매이지 않은, 세속에 초탈한 모습이다. 흡사 方外人처럼 보인다. 또 마기사는 초서객과 함께 제주로 들어가 자신이 본 기이한 풍광들-바다의 황룡이 물 위에서 서로 싸우는 장관, 백록담에 올라 멀리 바라본 서쪽의 蘇州와 淞江, 남쪽의 琉球, 그리고 정의현 앞바다에 老人星이 뜬 천하의 광경-을 하나하나 열거한 뒤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 크게 소리 지르고 미친 듯이 내닫다가 이윽고 시를 완성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준다. 그 시 역시 초서객이 어지러이 쓰고는 혹은 못 가운데 던지고, 혹은 바위틈에 버렸다면 그때의 즐거움을 잇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이들의 모습은 흡사 광기에 사로잡힌 예술가처럼 보이기도 한다.<sup>14)</sup> 사흘을 먹지도 않고 미친 듯이 시를 짓다가 詩興이 다해서야 돌아왔다는 마기사와 초서객을 광하는 ‘천하의 선비’요, ‘기인’이라며 탄복해 마지않는다.<sup>15)</sup>

이후 마기사는 초서객이 죽자 한동안 유람을 하지 않다가, 다시 시에도 능하고 노래도 잘하는 기이한 선비 董生을 만나 산수에 노닐며 시를 창화하였다고 한다. 동생이란 사람은 몇 해 전 역관의 종이 되어 연경의 저자를 유람하고 燕나라 昭王과 樂毅의 유희를 둘러보고 왔으며, 大明의 遺民이 오랑캐 습속에 물

13) <書馬騎士事> “山水固奇矣，遊而不觀於海，則未始游耳。又不可不與奇士遊，吾有客善草書，吾游山水，常與之俱，吾遇境得詩，必令客磨水墨淋漓，一揮巖壁間，棄去不復錄。嘗用一千五百錢，買舟臨津，便風入濟州，一晝夜，海中見黃龍水立相鬪，鯨魚蜃樓，奇怪駭異。上白鹿潭，是漢學絕頂毒龍之所宅，其西卽蘇崧福建之地也，晴日可以南望琉球。秋分見老人星出旌義海中，大如栢而沒，天下之奇觀也。吾大叫其上，跳躍狂奔，已而詩成，草書客亂筆，或投潭中，或棄亂石間。如是者三日，不食輿盡，擎舟徑歸，此樂或快不可忘也。”

14) 선행 연구에서는 마기사와 초서객의 ‘흥’과 ‘광기’를 예술가의 초상에 빗대며, 이들의 언동을 불평한 세상에 대한 몸부림으로 이해하였다(정환국, 앞의 논문, 308쪽).

15) <書馬騎士事> “光河亦好奇者，泠然作而曰，吾子固天下士也，草書客亦奇矣。”

든 것을 비분강개하였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그리고 마기사는 광하에게 시 한 수를 지어주고 작별을 고한다. 끝내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석북은 아우로부터 마기사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마치 변화하고 신출귀몰하여 神仙이나 劍客처럼’ 여기다가 이내 마기사를 ‘재주를 감추고 자취를 숨긴’ ‘奇男子’라고 규정한다. 아래 인용문을 통해 석북이 ‘기이’한 사람에게 시선을 사로잡힌 이유를 생각해 보자.

(1)기사는 세상의 기남자(奇男子)로서 기사의 자리에 자신을 감춘 자이다. 지금 사람들은 매양 옛날의 호걸스럽고 특출한 인사가 이 세상에 다시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마기사 같은 자가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가 비록 협소하나 산택과 초야의 사이에 숨어 지내며 나오지 않는 홀룡하고 빼어난 인재가 어찌 유독 마기사 한 사람에 그칠 뿐이겠는가. 저들은 혹 어부로, 혹은 장사꾼으로, 혹은 시정(市井) 사람으로, 혹은 하인으로, 혹은 걸식하는 승려로, 술을 팔고 개를 잡으며 신을 삼고 자리를 찌는 부류인데, 재주를 감추고 자취를 숨기며 살다가 끝내 늙어 죽어 사라지고 마니, 초목과 다를 것이 없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은 다시 이러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2)내가 기사 시를 보니 호방하고 걱정적인 것이 연(燕)나라와 조(趙)나라의 비분강개하는 비가(悲歌)의 기풍이 있었으니, 대개 불평(不平)한 자의 울림이었다. 아, 기사는 호탕하고 엄매이지 않는 기질을 가지고 하류(下流)에 침체된 채 그 장쾌한 마음을 펼 길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산수(山水)와 시주(詩酒)에 노닐며 이를 풀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 울림이 어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3)하지만 마기사는 좋은 때는 만나지 못했어도 산수와 만나고 시주와 만났으며 초서객(草書客)과 동생(董生)과도 만났으니, 기사가 순전히 불우한 것은 아니다. 나의 경우로 말하자면 나아감에 이미 세상과 합치되지 못했는데, 물러나 산수에 뜻을 두는 것에 능하지 못했고 시주에 뜻을 두는 것에도 능하지 못하였으며, 초서객과 동생과 같은 사람들과도 교류하지 못했으니 기사의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았는가?<sup>16)</sup>

16) <書馬騎士事> “騎士世之奇男子，而隱於騎士者也。今人每言古豪傑奇偉之士，不復有斯世，若騎士者，非其人耶。東國雖狹小，山澤草茅之間，瑰材儻物，伏而不出者，豈獨一騎士而止哉。彼或以漁採，或以商賈，或以市井，或以興儻，或以浮屠丐者，賣酒屠狗，捆襪織席之流，而舍

(1)의 내용을 보면, 마기사는 호걸스럽고 특출한 인재이나 기사의 자리에 자신을 감춘 자이다. 마기사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훌륭한 인재가 지닌 능력이 숨어 있어 살 수 있다는 것이 석복의 판단이다. 그들은 어부로, 장사꾼으로, 시정 사람으로, 하인으로, 걸식하는 승려로, 재주를 감추고 자취를 숨긴 채 살다가 끝내 늙어 죽어 사라지니 어찌 슬프지 않겠느냐며 안타까워한다. 저갓거리에서 술을 팔고 개를 잡는 하층민들 중에 비범한 능력을 지닌 기이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석복의 인식은 여항과 그 속에 살고 있는 민중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sup>17)</sup>

(2) 마기사가 호탕하고 얽매이지 않는 기질을 지녔다고는 하나 자신의 재주를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下流에 자취를 감추고 지내는 것에 불평한 마음이 없을 수 없다. 석복은 마기사가 산수를 끝없이 유람하고 詩酒에 노닌 것도 쌓인 울분을 풀고자 했던 것이라고 이해한다. 광하에게 준 마기사의 시<sup>18)</sup>에서 바로 그런 불평한 마음을 읽어낸 것이다. 석복의 해석에 따르면 한라산 꼭대기에서 사흘을 꼬박 미친 듯이 날뛰며 시를 지었던 것도 세상에 대한 불평한 마음을 풀어내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3) 그러나 한편으로 석복은 마기사가 좋은 때를 만나지 못했어도 불우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 역시 ‘不合於世’의 처지이나 자신과 달리 마

---

光遁跡，終以老死漸滅，與草木無異，世不復知有斯人，則豈不悲哉。吾觀騎士之詩，豪壯感激，有燕趙悲歌慷慨之風，蓋不平者之鳴也。噫，騎士以其磊落不羈之氣，淪於下流，無以發其壯心，則不得已洩之爲山水詩酒之遊，其鳴惡得不不平乎。然騎士不遇於時，而遇於山水，遇於詩酒，遇於草書客董生，騎士不爲全不遇矣。若余者進既不合於世，則退而有志於山水未能也，有志於詩酒未能也，草書客董生，願何以從遊，而不爲騎士所笑者乎。”

17) 윤채근은 전형적인 영웅 서사의 주인공들이 세속 공간에서 영웅성이 死産된 異人으로서 俗人들과 섞여 살아가는 모습을 허균과 박지원의 전을 중심으로 고찰한 바 있다(윤채근, 「한문소설에 등장하는 死産된 영웅과 그 의미」, 『한문학논집』 39, 근역한문학회, 2014, 37~62쪽). 여항 민중에 잠재된 가능성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석복의 <서마기사사>는 허균의 이인전(<남궁선생전>, <장생전> 등), 박지원의 예인전(<광문자전>, <민옹전>)과 상통하는 주제 의식을 보여 문학사적으로 그 위상을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

18) <書馬騎士事> “于今無友道，夫子故人同。脫劍明秋水，論詩動古風。前村騎馬立，落日戰場空。明發高陽路，監門老酒中。”

기사는 산수를 만나고, 시주를 만났으며, 초서객과 동생과 같은 기인들과 교류를 했으니 자신보다는 덜 불우한 것이 아니냐는 말이다. 석북은 산수에도, 시주에도, 기인들과의 교류에도 온전히 자신을 맡기지 못하였다는 자기 연민과 더불어 그런 자신을 마기사가 비웃지 않을까 염려한다.<sup>19)</sup> 그러면서도 석북은 자신의 시를 알아봐준 마기사를 한 번 만나보기를 고대한다.<sup>20)</sup> 이름도 모르고 본 적이 없기에 마기사가 자신의 앞을 지나가더라도 그를 알아볼 수 없음에 매우 안타까워하기도 한다.<sup>21)</sup> 그러나 마기사에 대한 풍문만 들려올 뿐 만나볼 수 없자 그에 관한 일을 기록하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랜다.

석북에게 마기사는 무엇이었을까? 석북이 더 늙기 전에 한번 만나보는 행운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은 마기사에게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不遇於時’한 마기사에게서 ‘不合於世’한 자신을 발견하고, 詩酒를 즐기는 마기사에게서 자신을 보았던 것이다. 비록 자신은 세상을 벗어나 산수 유람도, 시주에도 온전히 뜻을 두지 못했지만 마기사가 초서객과 노닐며 울분을 풀어냈듯 석북도 마기사와의 만남을 통해 세상에 대한 불평한 마음을 풀어내고 자기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했던 것은 아닐까.

마기사와 같은 인물은 <검승전>에도 보인다. 바로 검승의 스승인 무명 검객이다. 劍師 역시 그 정체가 끝내 드러나지 않는다. 검술에 능한 3천 명의 왜인 부대를 순식간에 살육할 정도로 뛰어난 검술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는 이를 없이 떠돌며 자신을 감추고 살아가는 기인이다. ‘팔도의 명산을 두루 유람

19) 박우훈은 석북이 세상과 뜻이 맞지 않았으나 知足を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기에 마기사와 같이 거리낌없이 처신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논의한 바 있다(박우훈, 앞의 논문, 55쪽). 그러나 기념자 마기사에 대한 석북의 지대한 관심을 보면 시대를 원망하지 않는 知足の 마음 상태에서 마기사와 자신을 비교했을지 의문이다.

20) 신익철은 마기사와 초서객의 관계를 ‘예술적 취향을 함께하는 벗’으로 보고 석북 역시 마기사를 자신의 지우(知友)로 여긴 것으로 보았다(신익철, 『예교와 속박에서 벗어난 참된 지기를 찾아』, 『한국고전문학작품론』 4권, 민족문화사연구소 편, 휴머니스트, 2018, 492~494쪽). 동의한다. 다만 마기사에 대한 석북의 비상한 관심이 지우를 그리는 마음만은 아니라고 본다.

21) <書馬騎士事> “嗚呼, 騎士故在世, 而吾不見騎士, 騎士日過吾前, 吾安得以知其爲騎士也.”

하다가 어떤 산에 이르러 일 년이나 반 년씩 머물고는 문득 버리고 떠나'가는 모습이나 '깊은 가을에 달이 찰 때면 간혹 산꼭대기에 올라가 한참 동안 칼춤을 추고' '바위를 치고 높은 소나무를 베어내 분이 풀려서야 멈추'는 모습<sup>22)</sup>에서 마기사의 모습이 겹쳐 보인다. 세상에 대한 불평을 펼 길이 없어 마기사가 산수 유람과 詩酒를 선택했다면, 검승의 스승은 마음속 깊이 간직한 분노를 칼춤으로 풀어냈던 것이다.

그리고 보면 뛰어난 검술 실력을 감추고 평범한 승려로 40년을 산속에서 살았다는 劍僧도, 포효하는 범에게 달려들어 허리를 조르고 앞치락뒤치락 튕굴다가 결국 벼랑으로 밀어낼 정도의 용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다는 虎僧도,奇才를 감춘 채 산중에 숨어 사는 隱者요, 奇男子라 할 수 있다.

결국 마기사, 초서객, 동생, 검승, 검승의 스승, 호승 등과 같이 세상에는 비범한 능력을 지닌 기이한 자들이 곳곳에 살고 있다는 것, 그곳이 저잣거리일 수도, 깊은 산속 절일 수도 있으며, 그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물건을 파는 장사치일 수도, 노승일 수도 있다는 것이 석복이 진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이라. 이들의 비범한 재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감춰진 채 결국 소멸되고 만다는 것은 결국 이 사회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는 시대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23)</sup> 결국 '不遇於時'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대의 문제라는 인식이다. 석복 자신이 뛰어난 재주를 품고서도 오랜 세월 소외되었던 것처럼 세상에는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한 걸출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의 재능을 억압하는

22) <劍僧傳> “師弟子三人，徧游八道名山，每至一山，結茅住一年或半年，輒棄去。秋深月盛，或登絕頂，舞劍器淋漓移時，擊石斷高松，怒洩乃止。然姓名不肯言。”(『石北先生文集』卷之十六，雜著)

23) 석복은 <검승전> 평결에서 劍師가 기이한 술법을 지니고도 몸을 숨기고 세상에 나오지 않은 것, 공명으로 스스로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은 것은 남이(南怡)나 김덕령(金德齡)의 경우와 같이 '지혜롭고 용감하여 출중한 능력을 가진 인사는 대부분 재앙을 면치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인식한다. <劍僧傳> “劍師伏而弗出，不欲以功名自顯，何哉？彼有異術，誠知壬辰之變，天數也，非區區智力可弭。自古智勇異能之士，多不免，小國尤甚焉。雖以國朝言之，南怡，金德齡，皆是已。”

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이 석복의 눈길을 ‘기이’한 사람들에게로 이끈 것이 아닐까 한다.

이와 같은 생각을 지닌 사대부 문인이 석복만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전 시대에는 허균(1569~1618)이 있었고, 동시대에는 박지원(1737~1805)이 있었다. 이후 김려(1766~1822), 이옥(1760~1815) 등이 그 맥을 이어 갔다.<sup>24)</sup> 기실 석복의 관심은 허균, 박지원과 다르지 않음을 <서마기사사>를 비롯한 그의 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3. ‘復讐’를 행한 인물을 통해 본 ‘不信不義’의 문제

<虎僧傳>의 주인공 호승 역시 그 이름을 알 수 없다. 작품 말미의 서술에 따르면 <호승전>은 석복이 1757년(영조 33) 병에 걸려 봉서암(鳳棲庵)에 우거 하던 중 승려 성원(性圓)의 스승이 겪은 호승의 일을 성원으로로부터 전해 듣고 기록한 것이다. 호승의 나이는 스무 살가량이고, 키는 7척 남짓이며, 남쪽 말을 썼으나 어느 지방 승려인지는 모른다고 한다. ‘호승’이라 부른 것도 ‘범에게 죽어서’이고, 호승의 일이 벌어진 절 이름도 잊어버렸다고 한다.<sup>25)</sup> 호승의 정체는 모르지만 당시 실제 있었던 일임을 강조하기 위해 석복은 이야기 전승자인 성원의 스승에 대한 정보를 부기하고 있다. 범명은 覺靈이고 舒川의 승려인데,

24) 지금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할 여력은 없으나 일례로 이옥의 <浮穆漢傳>에 보이는 梅花外史의 평결(<浮穆漢傳> “梅花外史曰, 俗諺曰, ‘洞內無名倡, 同接無文章’, 我國人素自輕, 故言, ‘越有仙人, 蜀有佛’, 則信, 言, ‘仙佛在我國某山’, 則不信. 彼安知我之某山, 亦蜀越之蜀越也? 且異人之未出世也, 塵光相混, 若火頭陀之爲, 則亦未知當面, 而幾錯過矣. 田間之女, 未必非白衣觀音也, 湖上過客, 安知不宮無上也?”)(李鈺,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 『完譯李鈺全集』 4권, 휴머니스트, 2009, 254쪽)은 석복과 같은 이들의 생각이 발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25) <虎僧傳> “後上之三十二年, 光洙寓疾鳳棲菴, 菴僧性圓言其師在山中, 得其事. 虎僧年可二十, 長可七尺餘, 不知何方僧, 蓋摻南音, 亦不知其名, 以死於虎, 稱虎僧. 其寺則聞諸師, 忘其名.”(『石北先生文集』 卷之十六, 雜著)

귀신을 잘 부렸으며 병이 들어 고기를 먹었다가 죽었다고 한다.<sup>26)</sup> 귀신을 잘 부렸다는 성원의 스승 역시 <부목한전>의 상좌승이나 부목한처럼 보통의 승려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전통적 의미 僧傳이라면 世間에서 벗어나 出家하기까지의 苦行이라거나 출가 후 修行과 깨달음에 이르는 역정에 초점을 맞추었을 것이다.<sup>27)</sup> 석복의 <호승전>에는 호승이 어떤 경위로 출가하게 되었는지, 스승과의 인연은 어떻게 맺어진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호승(虎僧)은 사람됨이 질박하면서도 힘이 세었는데, 그 스승을 몹시 부지런히 섬기니 스승도 그를 몹시 사랑하였다. 한 번은 스승과 함께 서쪽으로 가서 묘향산(妙香山)을 유람하고 변방의 여러 산을 두루 다니다가, 길을 바꾸어 깊은 골짜기의 작은 암자에 들어가 한 달 남짓 머물렀다. 호승은 늘 나가서 장사를 했는데, 그 스승과 돌아올 날을 정해 약속하면 한 번도 기일(期日)을 어긴 적이 없어서, 기일이 되면 스승은 반드시 문에 나가 기다렸다가 함께 돌아왔다.<sup>28)</sup>

위 인용문은 <호승전>의 첫 대목이다. 호승에 대해 가장 먼저 제시되는 정보가 ‘사람됨이 질박하고 힘이 세다’는 것이다. 이는 이후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범과 사투를 벌이는 사건을 예고하기 위함이었으나, 7척의 키에 힘이 세다는 점이 특기된 것을 보면 호승이 출가 전 유협의 부류였을 가능성도 추론해볼 수 있다. 그가 스승과 함께 묘향산을 유람하고 변방의 여러 산을 두루 다니다가 깊은 골짜기의 작은 암자에 잠깐씩 머물렀다는 점 역시 <검승전>에서 검승과 그 스승의 행보와 다르지 않다. 호승과 그 스승이 산속의 절로 숨어든 은자로 보이는 이유이다. 어쩌면 두 사람 역시 마기사와 마찬가지로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몸을 숨겨야 하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26) <虎僧傳> “圓師名覺靈，舒川僧，善治鬼，嘗病食肉而死”

27) 김승호, 앞의 논문, 265~272쪽.

28) <虎僧傳> “虎僧爲人，愿而多力，事其師甚勤，其師甚愛之，嘗與西游妙香，歷塞上諸山，轉入深峽小庵，留月餘，虎僧常出販，與其師約歸日，未嘗一失期，至期師必出門候，與俱歸。”

모를 일이다. 그러나 석복은 그들의 세세한 사정에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 다만 호승이 그 스승을 부지런히 섬겼고 스승 또한 제자를 각별이 아꼈으며, 호승이 나가서 돌아올 때쯤이면 그 스승이 늘 마중을 나갈 정도로 사제 간의 정이 두터웠다는 점을 주요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단락에 석복이 관심을 보이는 사건이 벌어진다. 멀리 장사하러 나갔던 호승이 돌아오기로 한 날이 되자 스승은 언제나처럼 마중을 나간다. 산에는 범이 많으니 밤에 외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승려들의 만류를 무릅쓰고 나갔다가 스승은 범에게 해를 당하고 만다. 길이 멀어 하루 늦게 돌아온 호승은 그제야 스승의 죽음을 알게 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신을 탓하며 통곡한다. 기절했다가 깨어난 호승은 스승을 죽인 범을 죽여 원수를 갚겠노라며 승려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승려들은 이에 응한다. 아래 인용문은 호승과 범이 한바탕 사투를 벌이는 장면이다.

이날 밤 과연 범이 와서는 담장 밖에서 크게 울부짖으며 모래를 움켜 양쪽 끝에 뿌리니 모래가 비처럼 쏟아졌다. 호승이 살그머니 앞으로 뛰어나가 달려드니, 범이 포효하며 사람처럼 서서 활귀었다. 호승이 형세를 보아 목 부위로 뛰어들어 범의 턱을 떠받치고, 손을 각지 꺼서 범의 허리를 조르며 크게 소리를 지르자 범 또한 포효하는데, 여러 승려들은 앞드린 채 감히 나서지 못했다. 호승은 더욱 힘을 짜내어 범의 가죽을 틀어잡아 손아귀에 다 넣고는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니, 범은 배가 부풀어 급하게 숨을 몰아쉬며 종(鐘) 틀을 끌어당기면서 더욱 포효하며 땅을 진동시켰는데, 여러 승려들은 더 바짝 앞드린 채 감히 나오지 못했다. 사람과 범이 십여 차례 었치락뒤치락 뒹굴다가 방석 십여 개 넓이의 땅을 붉게 물들이고 둘 다 힘이 고갈되어 죽었는데, 범이 벼랑에서 추락하였고 범의 위로 사람이 절반쯤 걸쳐 있었다.<sup>29)</sup>

29) <虎僧傳> “其夜虎果來，大吼牆外，攪沙撻兩鬮雨落。虎僧聞聲躍直前，虎吼而人立搏。虎僧就勢入頸拄虎頤，則義手搥虎腰大呼，虎亦吼，衆僧伏不敢出。虎僧益奮力縮虎皮，入握且盡，益大呼，虎膨急喘，引鏹益吼動地，衆僧益伏不敢出。人與虎可十易，腹背輾地，緒十餘席廣，兩鬮而斃，虎墜於崖，人半其上。”

석복은 포효하는 범의 위세와 그런 범의 기세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뛰어들어 범을 제압하고자 사력을 다하는 호승의 모습을 생동감 넘치게 묘사하였다. 그러는 한편 호승을 좌우에서 돕기로 했던 승려들이 몸을 사린 채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을 대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호승이 온 힘을 다해 범의 가죽을 틀어쥐고 고향을 지르는데도 암자의 승려들은 더욱 바짝 엎드릴 뿐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다. 호승과 범이 십여 차례나 엮치락뒤치락 뒹굴다가 땅을 붉게 물들이고 둘 다 힘이 고갈되어 벼랑에 떨어져 죽은 위의 장면은 호승의 의리를 부각하고 암자 승려들의 무도함을 비판하기 위한 석복의 섬세한 의도 아래 탄생하였다.

날이 밝자 신의를 저버리고 제 몸 사리기에 급급했던 암자 승려들의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보고를 받은 관아에서 바로 암자 승려들을 처형하자 이웃 고을 사람들이 모두 이를 통쾌하게 여기고 호승의 죽음에는 연민과 칭송을 보냈다는 후일담도 석복이 호승의 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부분이다. 아래는 작품의 평결이다.

무릇 세도(世道)가 갈수록 쇠퇴하고 각박해져서 향리의 소인 중에는 부모와 형제의 원수가 있음에도 목숨을 바쳐 원수를 갚는 자가 드물고 또 원수 관계를 이익으로 여겨 재물을 축적하는 자도 종종 있다. 저 불교는 이적(夷狄)의 가르침이니, 스승과 제자라고 칭하는 자들은 의리로 합해진 자들이 아니다. 그렇지만 호승은 자신의 몸을 먹잇감으로 삼아 범의 아가리에 투신하는 것을 꺼리지 아니하여, 뒤엎겨 싸우다 힘이 빠져 마침내 범과 함께 죽음으로써 그 스승의 원수를 갚았으니, 일찍이 이적의 가르침을 배운 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던가. 아, 호승은 죽어서 명예를 구한 자가 아니다. 성원(性圓)이 능히 그 일은 말하였지만 그 이름은 전하지 못했으니 또 얼마나 불행한가.<sup>30)</sup>

30) <虎僧傳> “夫世益衰薄，鄉曲小人，有父母兄弟之讐，蓋致死者鮮矣。又因利而貨居者，往往有之。彼浮屠氏，夷狄之教也。其所稱師弟子者，非以義合者乎。虎僧不憚以其身，爲肉投虎口，肉薄力竭，卒與虎俱斃，以報其讐，曾夷翟之教而斯人也哉。噫，虎僧匪死而求名者，性圓能道其事，不能傳其名，又何不幸也。”

석복은 먼저 세도가 갈수록 쇠퇴하고 각박해져 부모와 형제의 원수가 있어도 목숨을 바쳐 원수를 갚는 사람이 드물고, 원수 관계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로 여겨 재물을 축적하는 사람들이 횡행하는 세대를 비판한다. 그런데 불교는 오랑캐의 가르침이고, 스승과 제자라고 칭하는 자들은 의리로 합해진 이들이 아님에도 호승이 자신의 몸을 내던져 스승의 원수를 갚는 의리를 보인 것에 주목한다.

<검승전>에는 복수를 행한 인물이 두 명 등장한다. 한 명은 자기 동료들의 원수를 갚기 위해 10여 년을 따랐던 스승을 죽인 왜인이고, 또 한 명은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 왜인 동료를 죽인 검승이다. 두 사람 모두 복수를 행한 이유가 있었지만, 석복은 수십 년 동안 스승을 모시고도 사제 간의 의리를 저버린 이가 아닌 그 의리를 지킨 이의 손을 들어준다. 아래 인용문은 검승[노승]이 복수를 하게 된 경위와 그 복수가 석복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십 년 뒤 한 번 나가서 노닐 적에 그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신발 끈을 묶는데, 살려 주었던 한 명의 왜인이 갑자기 뒤에서 칼을 뽑아 그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가 노승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우리의 원수가 아닌가. 오늘에야 복수할 수 있었다. 우리 두 사람은 셋길을 통해 일본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노승은 스승이 해를 당하는 것을 직접 보고는 사납게 칼을 뽑아 또한 즉시 그 왜인의 머리를 베었습니다. 아, 노승과 그 왜인은 모두 다 왜인일 따름인데, 수십 년 동안 함께 스승을 모시면서도 밤낮 속으로 몰래 헤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이미 스승의 원수를 갚고 나서 생각해 보니 우리 세 사람은 마치 부자(父子)와 형제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길에서 스승을 잃었고, 또 동쪽으로 건너 온 검술에 능한 삼천 명의 왜인 가운데 우리 두 사람뿐인데도 제가 그 나머지 하나를 죽였으니, 돌아보건대 천하에 제 한 몸뿐이었습니다. 해가 나오는 일본은 출렁이는 바다로 만 리나 떨어져 있고, 이국(異國)에서 살자니 또 몹시 두려웠기에 제가 어떻게 혼자 살아갈겠습니까. 이에 마침내 그 사람을 곡한 뒤에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 나는 일본 사람인지라 동해에 뛰어들어 죽기 위해 동쪽으로 달려가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마침 바다에서 큰 고기가

싸우는지 세찬 과도가 몰아쳐 몸이 해안으로 밀려오니, 두 번 몸을 던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즉시 오대산에 올라가 중이 되어 사십 년간 솔잎을 먹으며 산을 내려오지 않았는데, 매년 스승님이 돌아가신 날이면 목을 놓아 곡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노승의 나이가 여든입니다. 조만간 죽을 것이니, 내년의 오늘에 다시 곡하고자 한들 쉬운 일이겠습니까.<sup>31)</sup>

자신의 눈앞에서 스승이 목이 베이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도한 검승은 지체하지 않고 칼을 뽑아 왜인 동료의 목을 가차없이 베어 버린다. 수십 년을 함께 스승을 모시면서도 그 스승을 해치려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왜인 동료에 대한 배신감과 父子와 같았던 스승, 형제와 같았던 동료를 잃은 상실감에 검승은 스승을 위해 곡을 한 뒤 바다로 뛰어들어 자살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의치 않아 자살해 실패하자 오대산으로 올라가 중의 무리에 숨어들어 사십 년을 산에서 내려 오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서 매년 스승이 돌아가신 날이면 목을 놓아 곡을 하며 지낸 검승을 석복은 ‘이적(夷狄)이지만 기남자(奇男子)’라며 칭송한다.<sup>32)</sup>

검사가 일본에서 건너온 삼천 명의 왜인들을 죽인 것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또 그들 중 두 사람을 살려준 것은 사제지간으로 관계가 재설정되었기 때문이다.<sup>33)</sup> 스승으로 따르며 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한 사이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왜인은 십수 년을 자신을 자식처럼 거두고 가르침을 준 스승을 원수로 여기고 배신하였다. 석복은 이를 신의를 저버린 것으로 본 것이다. 그렇기에 형제처럼 지낸 왜인 동료를 향해 칼을 빼어든 검승의 의리를 ‘기남자’의 복수

31) <劍僧傳> “後十年，嘗出游，其人頗而結罪係，一倭忽乘後拔劍，斷其頭。顧老僧曰，夫匪吾讐乎，今日得反之矣。吾二人盍問行反諸日本。老僧目見師遇害，狼發劍，亦立斷其倭頭。噫，老僧與其倭，俱倭耳，同師數十年，不知其日夜內懷陰賊心也。既報師讐，念吾三人，若父子兄弟，一朝塗喪師，又劍倭東來三千，吾兩倭在爾，吾殺其一倭，顧天下一身已。日出限漲海萬里，居異國，又多畏，吾獨生何爲，遂人哭欲自殺，又念我日本人也，投東瀛而死，東走瀛自投，會海大魚鬪，鼓浪卷落海岸，不能再投。卽上五臺爲僧，食松葉四十年不下山，每歲師死日，未嘗不哭失聲。今年老僧八十矣，朝夕且死，後年今日，欲復哭易乎。”

32) <劍僧傳> “抑五臺老僧，夷狄而奇男子也夫。”

33) <劍僧傳> “若屬三千，其不殺若二人已。若雖夷而讐我，亦人已，吾不忍盡之矣。若能順我乎？曰，死生唯命。”

로 본 것이다. 스승과 제자로 칭하는 이들이 의리와 신의를 목숨처럼 여기지 않기지 않는 사회, 서로 ‘不信不義’한 사회라는 비판적 인식이 호승과 검승의 복수에 주목한 이유였을 것이다.

비단 석북의 전만이 아니라 18세기 중후반 이후 등장하는 검협 서사로 분류되는 많은 작품들에는 명백한 살인 행위가 任俠으로 용인되는, 공권력이 개입되지 않은 ‘사적 복수’가 ‘신의’나 ‘의리’로 미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sup>34)</sup> 이 시기 작가들이 복수에 관심을 가지는 정서 및 그 이면에 드러난 비판적 인식에 주목한다면 당대 사회와 시대의 민낯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의 과제이다.

#### 4. 맺음말

본고는 <서마기사사>(書馬騎士事), <호승전>(虎僧傳), <검승전>(劍僧傳)에 나타난 ‘기이’와 ‘복수’에 대한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의 관심을 통해 작가가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시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석북은 <서마기사사>의 마기사(馬騎士), 초서객(草書客), 동생(董生), <검승전>의 검승(劍僧), 검승의 스승[劍師], <호승전>의 호승(虎僧) 등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 비범한 이들의 재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음을 간취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소멸되고 마는 것은 결국 이 사회가 부조리하고 불합리하다는 인식을 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북은 호승이나 검승과 같이 신의를 지켜 복수를 행하는 이들을 통해 불신, 불의로 가득한 당시 세태를 비판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석북 자신이 뛰어난

34) 임매(任邁, 1711~1779)의 <女俠>, 안석경(安錫敬, 1718~1774)의 <劍女>와 같은 야담, 이안중(李安中, 1752~1791)의 <李將軍傳>, 김조순(金祖淳, 1765~1832)의 <五臺劍俠傳>과 같은 전 등의 검협서사에 주목한 논의로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송정우, 「朝鮮後期 漢文 劍俠敘事 研究」, 박사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19.

재주를 품고서도 오랜 세월 소외되었던 것처럼 세상에는 좋은 때를 만나지 못한 걸출한 사람들이 있으니 눈여겨보아야 한다는 생각, 불신과 불의로 가득한 세태에도 의리를 지켜 복수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기억해야 한다는 생각이 석복의 눈길을 ‘기이’하고 ‘복수’하는 사람들에게로 이끈 것이 아닐까 한다. 이는 비단 석복 개인의 삶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당대가 재능이 억압된 사회, 신의가 붕괴된 시대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申光洙, 『石北先生文集』  
司馬遷, 「游俠列傳」, 『史記』

### 2. 단행본

박희병, 『朝鮮後期 傳의 小說的 性向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156~157쪽.  
신익철, 「예교와 속박에서 벗어난 참된 지기를 찾아」, 『한국고전문학작품론 4권: 한시와 한문산문』, 민족문화사연구소 편, 휴머니스트, 2018, 490~503쪽.  
이기현, 『石北 申光洙 文學 研究』, 보고서, 1996.  
이 옥, 실시학사 고전문학연구회 역, 『完譯 李鈺全集』 4권, 휴머니스트, 2009, 254쪽.

### 3. 논문

김경희, 「『검승전(劍僧傳)』에 나타난 인물 관계의 다문화적 고찰」, 『다문화와 평화』 8-3,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4, 21~43쪽.  
(UCI: G704-SER000001980.2014.8.3.002)  
김승호, 「朝鮮 後期 僧傳의 變異양상」, 『불교학연구』 22, 불교학연구회, 2009, 261~296쪽.  
(UCI: G704-001018.2009.22..008)  
박우훈, 「石北 申光洙의 散文世界」, 『인문학연구』 33-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47~70쪽.  
(UCI: G704-001795.2006.33.3.013)  
서신혜, 「고전서사 속 降倭의 형상화 양상에 대한 연구」, 『동양고전연구』 37, 동양고전학회, 161~188쪽.  
(UCI: G704-001739.2009..37.010)  
송정우, 「朝鮮後期 漢文 劍俠敍事 研究」, 박사논문, 서울시립대학교, 2019.  
윤채근, 「한문소설에 등장하는 死産된 영웅과 그 의미-통속적 이웃의 탄생」, 『한문학논집』 39, 근역한문학회, 2014, 37~62쪽.

(UCI: G704-SER000008636.2014.39..001)

이가원, 『石北文學研究』, 『동방학지』 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59, 149~204쪽.

(UCI: I410-ECN-0102-2008-910-001105736)

이은주, 「진짜인가, 진짜로 만든 것인가-18세기 ‘광노자(狂奴子)’ 사건의 이해」, 『이화어문논집』 49, 이화어문학회, 2019, 30~53쪽.

정난영, 「조선후기 人物記事의 서사화 양상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85, 한민족문화학회, 2024, 187~220쪽.

(UCI: I410-151-25-02-091385311)

정인혁, 「〈劍僧傳〉 서술자의 정체성 연구」, 『한국고전연구』 16,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197~225쪽.

(UCI: G704-001831.2007.0.16.006)

\_\_\_\_\_, 「전쟁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의 극복과 ‘교양’의 의미-석복 신흥수의 〈劍僧傳〉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3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26~60쪽.

(UCI: G704-001831.2015..32.007)

정하영, 「〈劍僧傳〉의 人物型과 갈등 양상」,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93~123쪽.

(UCI: G704-000294.2002.22..007)

\_\_\_\_\_, 「전쟁 포로의 소설적 형상화-〈劍僧傳〉」, 『탈경계 인문학』 4-3,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1, 5~33쪽.

(UCI: G704-SER000001966.2011.4.3.007)

정환국, 「조선후기 人物記事의 전개와 그 성격」, 『한국한문학연구』 29, 한국한문학학회, 2002, 291~320쪽.

(UCI: G704-000273.2002..29.002)

조현우, 「조선후기 소설의 항왜(降倭) 형상과 ‘민족’의 구성-〈검승전(劍僧傳)〉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57, 한국고소설학회, 2024, 5~38쪽.

(UCI: I410-151-25-02-091550514)

| Abstract |

## ‘eccentric’ and ‘revenge’ appeared in a Jeon of Seokbuk Shin Kwang-soo

Kim, Jeong-nyeo  
Dankook Univ. Prof

This paper examines how the writer Shin Gwang-su(申光洙) of Seokbuk(石北) understood the society and times in which he lived, through his interest in the ‘eccentric’(奇異) and ‘revenge’(復讐) that appear in “Seomagisasa”(書馬騎士事), “Hoseungjeon”(虎僧傳), and “Geomseungjeon”(劍僧傳). It seems that Seokbuk wanted to convey the perception that the talents of extraordinary people are not being properly developed through characters such as Magisa(馬騎士), Choseogaek(草書客), and Dongsae(董生) of “Seomagisasa”, Gumseung(劍僧) and a teacher of Gumseung[劍師] of “Gumseungjeon”, Hoseung(虎僧) of “Hoseungjeon”, and that the fact that they are unable to properly display their talents and end up disappearing is ultimately because this society is absurd and unreasonable. Furthermore, it seems that Seokbuk wanted to criticize the social conditions at the time, which were full of distrust and injustice, through characters like Hoseung and Geomseung who uphold their faith and take revenge. Seokbuk thought that he should remember the outstanding people in the world who have not met good times because he has been alienated for a long time even

though he had excellent talent. Therefore, Seokbuk seems to have paid attention to those who are 'eccentric' and 'revenge'. This may have led Seokbuk to these 'strange' and 'revenge' individuals. This concern is not limited to Seokbuk's personal life, but stems from his perception that his time was a society where talent was suppressed and trust was in tatters.

**Key words** : Shin Gwang-su, Seomagisasa, Hoseungjeon, Gumseungjeon, eccentric, Revenge